

진도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신청 접수

오는 5월 31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ha당 공공비축미 300포 추가배정 등 혜택 주어져

진도군이 쌀 가격하락과 과잉 수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논지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계획이 있는 논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300포 추가배정 ▲논콩 재배가능 농기회망 물량 전량 매입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작년 농사 농지에 올해 하계 가루쌀, 콩, 동계 밀, 하계조식료 등을 재배시 전락작물 직불금이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락작물 직불금 품목에서 제외되는 조, 수수 등의 타작물 재배시에도 ha당 200만원의 지급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 약산 동백숲, 피톤치드 발산량 내륙지역비 3배 높아

'완도 약산 동백숲'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산림이 복합된 약산 해안 치유의 숲에 위치해 있으며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 발산량이 높은 곳이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조사(2019년도)한 전남도 내 주산림 공기질을 보면 '완도 약산 동백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이 내륙지역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톤치드(phytoncide)'란 공기를 맑게 하고 살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NK 세포 활동을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인 8월에 피톤치드 발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암, 향산화, 면역 강화, 살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피넨과 향균, 향산화, 심신 안정에 유익하다는 베타피넨은 내륙지역보다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톤치드 발산량이 높은 이유는 동백, 참가시, 구실잣밤, 붉가시 나무 등의 난대수종을 넉넉히 품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공기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자원 탐사단을 꾸려 약산에서 자생하는 희귀·특산 식물과 유용 산림자원 조사를 통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물자원 보전 및 교육 자료로 활용에 나갈 방침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사업비 지원

올해 16억 3800만원 투입...주택 314동·지붕개량 55동 추진

장흥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61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314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창고·축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이 자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 문화예술의 꽃을 같이 피울 분을 찾습니다

해남군이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획자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모집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내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남, 마을에 文花를 피우다'를 성황리에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43개 마을, 1천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여했고, 64명의 마을문화 기획자를 양성해 기획자들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문화프로그램을 창출했다.

군은 올해도 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운영의 전반을 기획하는 총괄기획자 1명, 사업을 추진할 프로젝트 매니저 2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6일부터 26일까지이며, 문화기획 등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사람,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 불금불파' 26일 5시 개장식...10월 말까지 매주 금~토 열려

불고기·하멜촌 맥주·EDM 디스코 한마당 등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개최

는 맛의 1번지 강진 대표 먹거리인 병영돼지 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개최된다.

행사장에서는 연탄돼지불고기, 하멜촌맥주, 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와 토하젓, 병영전통주 등 살거리, 전라평영성, 하멜기념관, 병영 한골목 관광 투어, 추억의 오락실, EDM 디제이와 함께하는 디스코 마당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다

군에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입구 주차장에 승용차 70대 규모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병영하멜기념관 주변에 텐트촌 20개소, 음수대, 화장실, 샤워장을 구비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 불금불파 행사는 5월 26일 개장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열린다.

행사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광주광역시나 순천·목포권 기준으로 이동시간이 1시간 전후로 소요돼, 군은 인근 시군에서 대거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www.kumhoaround.com)에 강진 불금불파로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강진군 군수는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해, 금요일은 불금불파를 즐기고, 토요일은 마량놀토시장에서 보내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할 것이다"며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강진만의 매력으로 관광객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208명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출범

장흥군은 18일 군민회관에서 '장흥군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208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 선서, 퍼포먼스와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준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긴급자원봉사단으로 위촉된 12개 단체, 기관 소속 자원봉사자는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이웃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지키는 데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긴급자원봉사단은 재난현장 봉사 활동 경험을 살려, 재난 발생 초기에 이재민 긴급구호, 시설물 복구지원, 교통안내, 의료, 방역 지원 등의 재해 복구활동을 중점 지원한다.

군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운영매뉴얼을 보완하고, 소속 단체의 운영 책임자를 지정, 별도 운영 설명회 및 실무 교육도 곧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긴급자원봉사단의 활동이 일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산시키고, 민관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신속한 재해 복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